

“혼자 벌어 살기 힘들어”...맞벌이 가구 비중 역대 최대

지난해 광주 48.9%·전남 57.9%...광주, 전국 두번째 증가폭 전남지역 1인 가구 취업 비중 66.5%...전국 17개 시·도 중 5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맞벌이 가구 비중이 또다시 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 취업을 한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36만 1000가구 중 17만6000가구(48.9%)가 맞벌이 가

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45.0%에서 3.9%p 증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광주시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폭은 대전(4.1%p ↑)이 가장 높았고, 광주(3.9%p ↑), 전북(3.8%p ↑), 부산(3.7%p ↑), 경남(3.5%p ↑), 서울(2.4%p ↑)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 맞벌이 가구 증가폭이 컸던 것은 1년 새 유배우자 가구(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000명 줄

어든 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1만 4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고 '외벌이'로는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고물가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은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47만 2000가구 중 27만 3000가구(57.9%)가 맞벌이 가구로, 전년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유배우자 가구가 1000명 감소하는 동안 맞벌이 가구가 6000명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상승했다. 전남지역은 1인 가구 취업 비중 역시 큰 폭으로 뛰어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1인 취업 가구'를 보면 지난해 전남지역 1인 가구 27만 9000가구 중 18만 6000가구(66.5%)가 1인 취업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 가구 취업 비중은 세종이 76.3%로 가장 높았고, 제주(72.5%), 경기(67.9%), 충남(66.6%), 전남(66.5%) 순이었다. 전남지역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64.0%에서 1년 간 2.5%p 올라, 세종(3.4%p ↑)과 제주(2.6%p ↑)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는 1인가구 증가폭이 4000명으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반면, 1인 취업가구 증가폭은

1만명으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광주시 1인 취업가구 비중은 0.1%p 감소해 61.9%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1인 취업 가구 중 비중은 63.3%로, 전년(63.1%) 대비 0.2%p 올라 지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1인 취업가구 중 임금 근로자 가구는 지난해 기준 373만4000가구로 전년에 비해 6만5000가구 늘었다. 반면, 이들 중 임금근로자의 경우 11.1%는 월급이 100만원을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바리에 매장 전경.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시금치 피자' 외식 브랜드 '바리에' 오픈

30일까지 개장 기념 할인 이벤트

광주신세계는 18일 본관 지하 1층 푸드코스에 '시금치 피자'로 유명한 외식 브랜드 '바리에'가 오픈했다고 밝혔다. 바리에에 오픈 기념으로 오는 30일까지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지역 커피 브랜드 '육각커피' 1000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리에에 지난 2009년 서울시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바리에팝업'이라는 상호로 시작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지난 2011년 광주 충장로에 자리 잡았다. 이후 시금치 메뉴인 '시금치 피자'로 '수요미식회' 등 방송을 타며, '광주대표 피자맛집'으로 유명세를 얻어 10년 넘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베어린 시금치피자', '빠세파스타', '소고기 그린 스테이크 라이스' 등이 있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광주신세계가 10년 이상 광주맛집으로 자리잡은 바리에를 입점시키게 됐다"며 "광주신세계는 지역 현지법인으로서 앞으로도 바리에와 같은 지역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바리에' 뿐만 아니라 '궁전제과', '소맥 베이커리', '키친205', '육각커피' 등 다양한 광주·전남지역 브랜드를 적극 입점시킨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5만 영세사업자, 내달 부가세 '일반→간이과세' 전환

간이과세 대상 매출 기준 완화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세무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간이과세 기준 완화로 전년

(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무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무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자세무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통계청 7월23일까지 경제통계 통합조사

광주·전남 등 5만 3000 사업체

호남지방통계청은 오는 7월 23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5만 3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분포, 경영실

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기업활동조사 등 5종의 연간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인터넷 등 비대면 응답도 가능하게 해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항목으로는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

실적, 연간 제품별 출하액 등과 매장면적, 객실 수 등 업종별 특성항목들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국민경제추계 등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주요 경제지표 편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의 성실한 응답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첫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1231억원 배정

기재부, 20년물은 769억원 배정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 결과 10년물은 초과, 20년물은 미달된 점을 고려해 10년물 배정을 늘렸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17일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건수는 10년물 1만3084건, 20년물

4673건 등 모두 1만7757건으로 집계됐다. 청약 금액은 10년물 3493억원, 20년물 769억원으로 4262억원이다. 6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당초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10년물 초과청약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조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에 개인투자용 국채의 종목별 최종 발행한도는 10년물 1231억원, 20년물 769억원이다. 청약 금액은 배정기준에 따라 20년물은 청약액 전액을, 10년물은 기준 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달 처음 판매됐다. 7월 발행계획은 이달 28일 공표 예정이며, 6월 판매 현황·수요를 고려해 발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신규취업자·기업에 채용 장려금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4월 25일 현대차·기아·고용노동부의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 체결에 따라 관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근로자의 장기근속 장려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취업 근로자(만 15세 이

상 59세 이하)에게 기간별 100만원, 연 최대 300만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며, 신규 근로자(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채용 기업에게는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의 도약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공동이용 시설 개선, 기숙사 임차비(월세) 지원, 근로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근로자 급여·복지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 대표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로(062-350-5894, 5898)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보, 하나은행과 75억원 규모 협약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하나은행과 7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광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신보는 자금유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하나은행은 대출을 실행한다. 협약보증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신보 홈페이지(gsinbo.or.kr)를 통해 상담을 예약

한 뒤, 광주신보 지점을 방문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 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또 이번 협약보증은 우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연계할 경우 4% 초·중반대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광주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신보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일시적 기후 충격 기온 1℃ 오르면 농산물 물가상승률 0.4~0.5%p ↑”

한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보고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위험이 갈수록 커져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8일 공개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해의 선행 연구와 국내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기온상승은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등 일시적 기후 충격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0.5%p 높아지고, 이 영향이 6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 한파 등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슷한 물가 영향이 확인됐다. 아울러 1년간 각 월의 평균기온이 장기평균(1973~2023년)보다 1도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 한 결과, 1년 후 농산물 가격은 2%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분석 결과를 국내 평균 기온이 2019~2023년 13.2도에서 2040년 13.6~13.8도까지 상승하는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적용하니,

2040년까지 농산물 가격은 0.6~1.1%, 전체 소비자물가는 0.3~0.6% 더 높아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국내 기후 변화의 (물가에 대한) 직접 효과에 더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기후 변화의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내 기후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앙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63.92(+19.82)
↓ 코스닥	858.95(-0.01)
↑ 금리(국고채 3년)	3.214(+0.002)
↓ 환율(USD)	1381.10(-0.10)